



지난 1989년 개통된 광주 백운고가도로가 오는 2008년까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지하차도가 건설된다. 백운광장은 하루 평균 17만대의 차량이 통과, 광주 시내 최대 혼잡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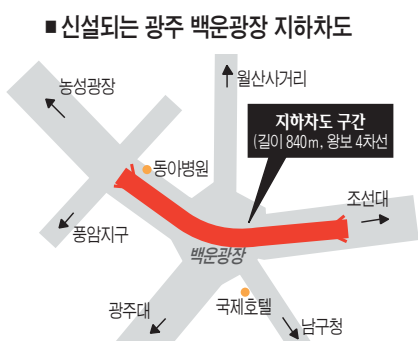
백운고가 내년 헐고 지하차도로 뚫는다

광주시 최종 확정...지하차도 구간 840m

광주시는 주요 관문 중 최대 혼잡 구간인 광주 남구 백운광장의 고가 도로를 철거, 이 자리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백운광장 로터리는 평면교차로 신호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새로 생기는 지하차도는 현재 고가 도로가 위치한 조산대~농성광장 양면의 도로에 총 길이 840m, 폭 18m (양복 4차선)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550억원이다. 백운고가는 오는 2008년까지 헐리고, 지하차도는 2008년 설계를 거쳐 2010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백운광장의 하루 평균 승용차 통행량은 17만대로 운암 4거리(15만대) 등 5대 주요 관문 가운데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로 인해 승용차가 로터리를 통과 하는데 평균 134초의 시간이 걸리며, 주말 및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이상을 넘기기 일쑤다. 시는 지하차도(+신호운영 로터리를

개설할 경우, 로터리 통과 시간을 48~49초로 줄여 상습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차도는 도시철도 2호선의 일부 노선과 중첩되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을 도시철도 건설과 병행해 시공할 예정이다. 지상고가 경전철 건설시 레일을 떠받치는 교각의 지하차도 통과 위치(지하차도의 중앙 또는 가장자리)에 따라 지하차도의 설계도 달라지고, 양 공사를 별도로 추진할 때에는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주변 교통혼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989년 개통된 백운 고가도로는 건설 당시 백운광장을 가로지르는 도심 철도로 인해 지하차도가 아닌 고가 방식을 채택했다. 백운 고가도로는 지난 2000년 건교부로부터 위험도로로 선정, 오는 2008년까지 철거해야 하지만 그 이후



대안으로 ▲연장재가설 ▲로터리 평면교통신호체계 도입 ▲지하차도 건설 등의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시는 2003년 애초 사업 타당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도출된 백운고가의 연장 재가설을 추진하려 했으나 철거를 주장하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보류했다가 2005년 철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후 지난 해 용역을 통해 '지하차도+로터리 신호체계'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과도 도출한 뒤, 최근 지하차도 건설을 최종 확정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소득·학력 세습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자녀들이 서울대, 연·고대 등 11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최대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형재 한국노동연구원 부 연구위원은 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2000년~2005년 한국노동패널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1분위 소득계층(최상위 25%)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14.1%로 4분위 소득계층(최하위 25%)의 2.7%에 비해 5.2배 가량으로 높았다고 주장했다.

“자녀 명문대 진학률 계층간 최대 5.2배차”

또 상위권 대학의 범위를 21개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진학률은 21.1%로 최하위 소득계층의 2.7%에 비해 7.8배 정도로 격차가 있었다.

4년제 대학 전체로 살펴봤을때도 최상위 계층은 진학률이 66.9%에 달했지만 최하위 계층은 49.3% 수준에 그쳤다.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자녀의 대학진학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력 수준이 대학 이상인 어머니가 있는 가구의 자녀가 상위 11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14.9%였지만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고등학교 미만일때는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3.1%에 불과했다.

아울러 개인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11개 상위권 대학진학률은 11.7%에 달했지만 개인과외를 받지 않은 학생들의 진학률은 7.2%에 그쳤다. /연합뉴스

민주發 통합신당 금물살

장상 대표 “집단탈당후 제3지대로”...與 재선그룹 동행

정계계편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분열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여왔던 민주당이 제3지대에서의 범여권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섬에 따라 통합신당 창당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기에 김한길 전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강경 신당파와 의원들도 집단 탈당에 참여할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들어가는 등 세 규합 움직임을 보이면서 열린우리당의 분당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일 장상 민주당 대표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김효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중도개혁세력 결집을 위해 몰입 작업을 해왔으며 열린우리당이 예상 밖으로 빨리 붕괴되면서 통합이 촉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안되며 제3지대에서 다른 세력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개별적인 탈당은 없을 것이고 민주당은 함께 제3지대로 간다”고 말했다. 제3지대 신당 창당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을 통해 통합신당 창당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부겸, 임종석, 송영길, 정장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재선 의원들과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와 만나 통합신당 창당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 등을 통해 통합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준다면 적어도 10명 이상의 재선의원들이 탈당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모 의원은 “재선 그룹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된 상황”이라며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중심당 신국환 공동대표도 통합신당 추진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김한길 의원 등도 김효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대규모 탈당이 이뤄질 것”이라며 협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행보에 따라 통합신당 창당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盧 대통령-姜대표 9일 민생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문제를 비롯한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양자회담 개최와 관련, 1일 오전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나라당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간의 2차 실무접촉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전했다.

회담에는 청와대에서 이병완 실장과 변양근 정책실장, 윤승용 수석, 한나라당측에서 박재완 실장과 전재희 정책위의장, 나경원 대변인이 각각 배석한다. 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양자 회담은 2005년 9월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연정 회담 이후 1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박 실장은 “오늘 실무접촉에서는 전체적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분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의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회담에 앞서 6일 3차 실무접촉을 갖고 회담 주요 의제인 민생경제 현안과 이달 임시국회에서의 개혁법안 처리문제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회담을 만찬이 아니라 오전 10시로 잡은 것은 많은 의제를 논의하는 생산적 회담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담 날짜를 내주 후반부로 잡은 것도 사전 실무접촉을 갖고 충실히 정치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공인재 바른길 중입법법사무소 개인

www.barungil.co.kr

개업소인일시 : 2007년 2월 2일(금) 17:00~

대표변호사: 문 경 원
 고문변호사: 이 용 희
 변호사: 이 한 진
 변호사: 한 상 중
 변호사: 장 운 순

주요업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노동, 기업합병, 파산, 상속, 국제사법, 인사, 국제세법, 부동산거래

TEL: 062-381-0950 FAX: 062-0260
 TEL: 062-232-0050 FAX: 232-1305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Upgrade 세기보청기

세계스타·세기보청기